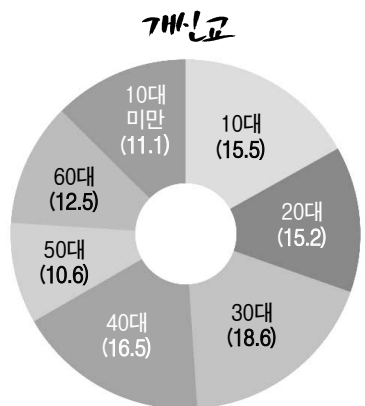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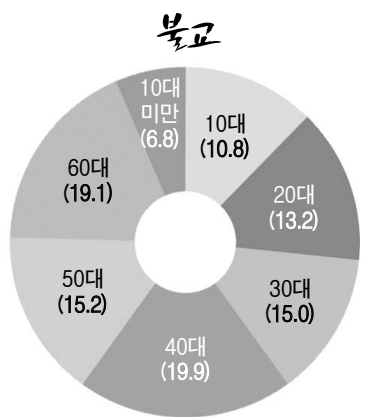


60대 이상 불자 50% 증가... 수도권 포교 '발등의 불'

2005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2005 종교별 연령대 구성비(단위:%)



▲ 성별

지난 10년 간 불자는 여자가 더 많이 증가했지만, 가톨릭은 남자가 더 많이 늘었다.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여초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세 종교 모두 여자 신자 비율은 53% 정도였다.

2005년 불자 1072만6000명 중 남자는 505만 5490명(47.1%)이었다. 이는 1995년 보다 18만 4637명(3.8%) 증가한 것이다. 여자는 567만0973명(52.9%)으로, 95년 보다 22만0814명(4.0%) 증가했다.

개신교 신자 861만6438명 중 남자는 400만3536명(46.5%), 여자는 461만2902명(53.5%)이었다. 95년에 비해 남자는 8만3820명(2.0%), 여자는 6만 0078명(1.3%) 감소했다.

가톨릭 신자 10만4575명 중 남자는 5만7629명(46.1%), 여자는 4만6946(53.9%)이었다. 95년에 비해 가톨릭은 남자가 103만3214명(77.1%), 여자가 116만2203명(72.1%) 증가했다.

▲ 연령별

40대 이상 불자 절반 넘어

불자는 전체 중 40대, 50대, 60대 이상이 1·3·2위를 차지했으며 절반(54.2%)을 넘었다. '나이드는 불교'의 현실이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40대, 20대, 30대가 1·2·3위를 차지하면서 비교적 '젊은' 모습을 보였다. 개신교도 30대, 40대, 10대 순.

2005년 불자는 40대(213만5571명, 19.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60대 이상(205만0239명, 19.1%), 50대(162만5863명, 15.2%), 30대(160만 6154명, 15.0%), 20대(141만4557명, 13.2%), 10대(115만9470명, 10.8%)가 이었다. 95년에는 30대, 40대, 20대, 1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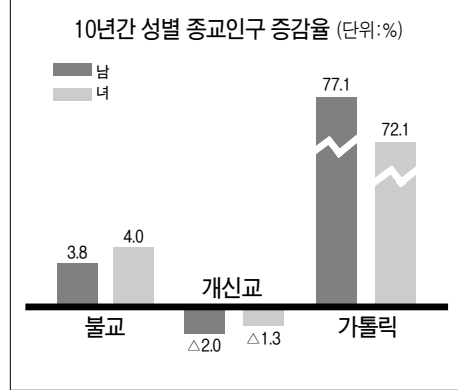
가톨릭은 40대(90만4071명, 17.6%)가 가장 많았고 20대(82만1020명, 16.0%), 30대(80만7868명, 15.7%), 10대(76만3458명, 14.8%), 60대 이상(69만 5870명, 13.5%) 순이었다. 95년에는 30대, 10대, 20대, 40대, 60대 이상 순.

개신교는 30대가 18.6%(145만105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142만1039명, 16.5%), 10대(133만5277명, 15.5%), 20대(131만0811명, 15.2%), 60대 이상(108만0136명, 12.5%) 순이었다. 95년에는 10대, 30대, 20대, 40대, 60대 이상 순.

30대 이하 불자 모두 감소 '고령화'

불교, 개신교, 가톨릭 모두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불교, 개신교는 10·20·30대 모두 감소한데 비해 가톨릭은 증가했다. 가톨릭은 특히 40대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95년에 비해 10대 불자는 22만8369명(16.5%), 20



대는 22만4448명(13.7%), 30대는 46만1618명(22.3%) 감소했다. 40대부터 39만0746명(22.4%), 50대 24만3902명(17.6%), 60대 이상 68만8514명(50.6%)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신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10대 신자는 37만2876명(21.8%), 20대는 35만4305명(21.3%), 30대는 21만9820명(13.2%) 감소했다. 그러나 40대 31만4957명(28.5%), 50대 24만7997명(37.4%), 60대 이상 39만3253명(57.3%) 등 중장년층은 증가했다.

그러나 가톨릭은 10대 21만8485명(40.1%), 20대 33만1568명(67.7%), 30대 22만0993명(37.7%)이 증가했다. 특히 40대 46만0314명



남녀비율 | 불교·개신교·가톨릭 모두 47:53

40대 이상 | 불교·개신교 비해 가톨릭 크게 늘어

불교세 강한 영남권 불자 비율 40% 육박

(103.7%), 50대 36만2641명(143.6%), 60대 이상 43만0524명(162.3%) 등 중장년층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 행정구역별

수도권·대도시 불자 비율 감소

지난 10년 간 수도권 불자 비율은 감소했다. 영남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도심포교를 등한시 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5년 서울시 불자는 16.8%로 95년 18.4%에 비해 1.6% 줄었다. 인천시 또한 95년 14.6%에서 2005년 13.8%로 0.8% 감소했다. 경기도 지역도 18.5%에서 16.8%로 1.7% 감소했다.

광주수도 15.3%에서 14.4%로 0.9% 감소했으며, 대전수도 23.1%에서 21.8%로 1.3% 줄었다.

경남 불교인구 비율 40.1%로 최고

행정구역 내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40.1%), 울산시(39.8%), 부산시(39.2%), 경북(33.9%), 대구시(33.4%) 등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경남, 경북지역은 95년에 비해 각각 3.8%, 2.9%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과 전북지역은 각각 29만2747명(16.1%), 22만7364명(12.8%)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지난 10년 간 2.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분당 가톨릭 인구 두배로

신도시 포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불자는 5만7824명으로 95년 보다 7797명(15.6%) 증가했다. 개신교는 10만4798명으로 1만

0059명(10.6%) 증가. 이에 비해 가톨릭은 8만0425명으로 3만8837명(93.4%) 증가했다.

같은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불자는 13만1969명으로 95년 보다 4만0698명(44.6%) 증가했고, 개신교도 213132명으로 73942명(53.1%)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124182명으로 75439명(154.8%)으로 증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181만5174명 중 절반 이상(51%)인 92만5595명이 종교가 없었다. 강원도도 74만7547명, 충청북도도 73만 3464명, 광주도 73만 1497명이 종교가 없었다.

불교 신자 가장 많은 곳 경기도

행정구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불자가 174만1401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불교세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이어 서울시(164만2667명), 부산시(137만8384명), 경상남도(122만542명), 경상북도(87만509명) 순이었다.

개신교도는 경기도(226만0594명), 그 다음은 서울시(222만2831명), 인천시(56만3433명), 전라북도(46만7454명), 전라남도(39만6183명) 순.

가톨릭은 서울시(138만2264명)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128만6104명), 인천시(34만5843명), 부산시(26만1410명), 대구시(24만0230명) 순이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예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 齋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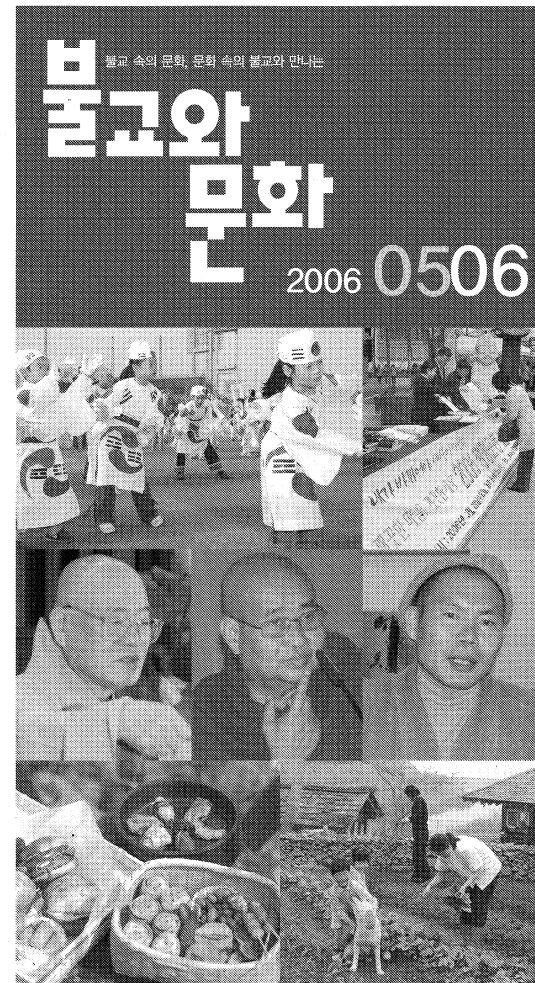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다" (감탄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본지 소개 | 불기 2550(2009)년 부처님 오신 날
성전 스님의 산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지상법문 | '계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회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청정문중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님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제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른바,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문화치유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한방음악치료의 활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융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증평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②
지상종계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응관 수행법 ②
열린불교, 열린경영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타운 건립하는 영남불교대학
한호를 쉬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칠백고지 고운동 이장석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중묵이 쓰는 바이블을 시원으로 하는 시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고관화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미국 백인불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법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에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역불시대 수행일전 | 금강산에서 선종(禪宗)을 드날린 서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문화 | 혼침의 노예, 불날 오후가 나른해지는 진짜 이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